## 공동체 소식

### 성모 승천 대축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녀이시며 성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부르시어, 그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게 하셨으니, 저희도 언제나 하느님을 그리워하며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 ▣ 8월 기도지향

- **문석찬(요셉), 백문주(엘리사벳) 가정**
- **박성기(모이세), 김정옥(수산나) 가정**

### ▣ 주간 전례

- 8/14(수)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사제 순교자 기념일
- 8/15(목) 성모 승천 대축일

### ▣ 쎌 기도 주일 팀

- 첫 모임 : 8/11(일) 중심미사 후, 오후 1시
- 장소 : 회관

☞ '쎌기도'는 성모님을 통하여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좋은 신심단체입니다.

### ▣ 평협회의

- 일시 : 8/18(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회관

### ▣ 의무축일

- January 1, the solemnity of Mary, Mother of God
- Thursday of the Sixth Week of Easter, the solemnity of the Ascension
- August 15, the solemnity of the Assumpt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 November 1, the solemnity of All Saints
- December 8, the solemnity of the Immaculate Conception
- December 25, the solemnity of the Nativity of Our Lord Jesus Christ

☞ 보편교회법 1246조 2항에 근거한 미국 주교회의 결의(1992년)

### ▣ 기타

- 저희 한인 공동체의 친교와 미래를 위해 주일 미사만큼은 본당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하고 소홀히 한다면 공동체의 미래도 어둡습니다.
- 본당 공동체의 기도와 방문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지체 없이 구역장님을 통하여 신부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 광복절 기념 소프트볼 대회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대한노인회 미주총연합회에서 9월24일부터 10월3일까지 고국 방문을 계획합니다. 문의 ☏ (913)897-5365

### ▣ 전례 성가

| 시 작 | 예 물 | 성 체 | 마 침 |
|---|---|---|---|
| 259 | 237 | 156/155 | 258 |

### ▣ 주일미사 복사

| | |
|---|---|
| **금주** | 안지영(카타리나), 고평원(프란치스코) |
| **차주** | 안광희(크리스토퍼), 이원준(요한) |

###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 | 해설자 | 제1독서 |
|---|---|---|
| | | 제2독서 |
| **금주** | 최은미(아 네 스) | 조장군(바오로) |
| | | 우숙정(아나스타시아) |
| **차주** | 박혜정(카타리나) | 문석찬(요 셉) |
| | | 백문주(엘리사벳) |

### ▣ 애찬 봉사자

| | |
|---|---|
| **금주** | 김명은, 김화년, 안현숙, 박옥희, 전현교 |
| **차주** |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임지현, 김정애 |

### ▣ 헌금 봉사자

| | |
|---|---|
| **금주** | 문석찬(요셉), 최은미(아네스) |
| **차주** | 김시연(엘리사벳), 백문주(엘리사벳) |

###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참례인원 | 헌금 | 교무금 |
|---|---|---|---|
| **07/28** | 90명 | 410불 | 2,050불 |
| **08/04** | 78명 | 356불 | 840불 |

성모 승천 대축일 |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 2013년8월 11일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늘에 불려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지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지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처럼 천상 세계로 인도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상적 존재를 천상적 존재로 불러 주시는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시다.

## 성화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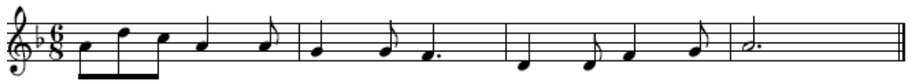
**성모 승천**
**(니콜라스 푸생, 1650년, 캔버스에 유채, 파리 루브르 미술관 소장)**

니콜라스 푸생은 영광에 싸여 두 손을 벌리고, 천사들에 에워싸인 채 세상 위로 옷깃을 휘날리며 승천하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매우 극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아드님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하시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드러내셨고 복된 구원의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 서 :** 묵시 11,19ㄱ; 12,1-6ㄱㄷ.10ㄱㄴㄷ <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

**화 답 송 :**



왕 후 가 당 신 우 편 에 서 있 나 이 다

○ 오피르의 금으로 단장한 왕후는 당신 우편에 서 있나이다.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겨레와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

○ 이에 임금께서 네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그분께서는 네 임자이시니 그 앞에 꿇어 절하여라.
기쁨과 즐거움과 더불어 인도되어 임금님 대궐로 들어가나이다. ◎

**제 2 독 서 :** 1코린 15,20-27ㄱ
< 맏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복 음 :** 루카 1,39-56 <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

## 셰 마 "서로 뜻을 같이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2코린 13, 11)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활의 여정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림을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음을 기리는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신앙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와 같이 승천하여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궁극적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모 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성모님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이 지상 여정에서 위험과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당신의 모성애로써 돌보아주시고, 이들을 행복한 고향으로 인도해 주신다."(교회헌장 62항)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성모님께서 전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의 승천 대축일을 경축하면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 이뤄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온 겨레의 참된 평화입니다.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비탄하는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요한 14,2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자 그분의 제자로서 이 세상 안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파견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자 교황 요한 23세께서는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평화는 모든 시대의 인류가 깊이 갈망하는 것으로서 진리, 정의, 사랑, 자유 안에서 하느님께서 설정하신 질서를 충분히 존중할 때 비로소 회복될 수 있고 견고해진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며, 그분께서 사람들을 갈라놓는 증오의 벽을 허무시고, 갈라진 두 편을 하느님과 화해시키셨다."(에페 2,14 참조)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질서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고, 진리와 정의를 실현할 때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정전 60주년이 지났는데도 우리 한반도는 여전히 남북으로 분단되어 끝없는 대립과 대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화해는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의 지름길이며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이제는 불행하고 어두운 과거를 넘어서 밝고 희망적인 미래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는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당국은 중단된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 서신 교류, 만남 등 가장 인도적인 조치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무조건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가족의 생사조차 모른 채 가슴의 한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계신 이산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남북한 이산가족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남북한이 열린 마음과 지혜로운 정책으로 인도적인 도움과 평화적인 교류를 늘려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남북한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분단의 상황에서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인인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는 화해와 일치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우리를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겨레는 분열과 미움을 버리고 사랑과 평화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한반도가 인간의 존엄과 진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로 발전하여 서로 화해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 날이 더욱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길 간청합니다. 또한 온 겨레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여!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남북이 진정으로 화해를 이루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느님께 전구해 주소서. 아멘."

**2013년 성모 승천 대축일**
**천주교 서울대교장 겸 평양교구장 서리**
**염수정 대주교**





## 마중물 공존할 수 없는 두 존재

링컨 대통령이 노예해방을 위하여 남북전쟁을 할 때입니다. 전세가 남군 쪽으로 기울어지자 각료들이 링컨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노예해방운동을 계속하면 우리 내각은 총사퇴할 것입니다. 당장 노예해방운동을 중지해주십시오."

링컨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뇌하며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느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느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은 공존하지 않는다."

다음날 아침 링컨은 모든 각료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유와 노예가 공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을 계속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와 노예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의 노예 노릇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생명과 참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죄의 노예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앙의 해' 교육자료

### 제 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다"**

**48.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1코린 11,23) 열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에, 자신을 자유로이 하느님께 바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수난 전날 아직 자유로우실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을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성부께 드리는 자발적인 봉헌의 기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주는 내 몸이다"(루카22,19).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8).

이 순간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성사는 당신 희생의 "기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봉헌에 사도들도 포함시키시고, 그들에게 이를 계속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 사도들을 새로운 계약의 사제로 세우십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19).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